

서울의 한 의원에서 시행된 방문진료

공경애, 백인미*, 정유지, 이상화, 이흥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우리집 의원

연구배경: 노령화사회의 진전으로 만성퇴행성질환과 거동불편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로 가족의 간병능력은 감소하면서 재가환자에 대한 가정의료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가정간호사업이 확대되어 이러한 요구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의사의 진료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한 의원에서 시행되었던 방문진료들의 사례들을 검토하여 방문진료에 대한 요구와 특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방법: 1999년 3월부터 10개월간 방문진료를 전문으로 하였던 한 의원의 자료 중 현재 남아있는 84권의 진료기록부를 검토하여 환자의 성별, 연령, 방문횟수와 기간, 방문거리, 진단명, 재가환자가 된 이유와 방문진료를 요청한 이유를 평가하였다.

결과: 84명의 환자 356건의 방문진료에서 환자의 연령 중위수는 67.5세, 남자 39.3%, 여자 60.7%였으며 중위수로 환자당 방문횟수 2회, 기간 4일, 직선 방문거리는 6.1 km였다. 압과 뇌혈관질환이 각각 17건(1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재가상태가 된 이유는 신경과적 문제(28.6%), 노환(21.4%), 말기질환(20.2%)순이었고 12명(14.3%)은 비영구적, 62명(73.8%)은 영구적인 재가환자였다. 방문진료를 요청한 이유는 만성재가환자의 추적관찰(42.1%)과 새로운 문제발생(19.9%), 말기환자진료(17.1%)의 순이었으며 일단 의사의 진찰이 필요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102건(28.6%)이었고 재가환자의 추적관찰 등 233건(65.4%)은 가정간호사의 방문으로 대처하더라도 그 중 일부는 의사의 정기적인 진찰이어야 하는 경우였다.

결론: 가정에서의 의료서비스는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재가환자에서, 만성질환의 악화나 새로운 문제의 발생뿐 아니라 급성질환과 만성재가상태의 정기적 관리에서 모두 요구되었다. 재가환자들의 진료요구를 충족시키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간호 이외에 의사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방문진료를 제도화,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중심단어: 방문진료, 가정의료, 재가환자